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능력

사도행전 22:22-29

²²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다가 “저놈을 죽여라! 저런 놈은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하고 외치면서²³ 옷을 던지고 마구 먼지를 날렸다.²⁴ 그러자 부대장은 부하들에게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왜 사람들이 것처럼 바울에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고 싶어서 채찍질하여 바울을 심문하라고 지시하였다.²⁵ 군인들이 가죽끈으로 바울을 묶자 바울이 곁에 선 ¹⁴장교에게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함부로 채찍질할 수 있소?” 하고 따졌다.²⁶ 장교는 이 말을 듣고 부대장에게 가서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물었다.²⁷ 부대장은 바울에게 와서 “말해 보시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오?”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자²⁸ 부대장이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오” 하고 대답하였다.²⁹ 바울을 심문하려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곧 물러가고 부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묶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 중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비유의 내용을 꼭 좋아해서라기보다는—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이 비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16절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고용하여 하루 동안 일하는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에도 주인은 하루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제육시에도 사람을 고용했고, 제십일시에도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한 사람들이 제십일시에 와서 잠깐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와 약속한 것을 받고 있다. 이 포도원은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주는 것은 나의 권한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평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은 땀을 흘리고, 솔직히 말해서 더 많은 일한 사람이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한 이후 제가 전해 온 메시지에는 한 가지 일관된 주제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온

성도들에게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문제도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바로 그 문제입니다. 공평함과 평등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과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익숙하게 생각하는 어떤 형태의 공평함이나 평등보다도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사고방식의 전환(**paradigm shift**)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고방식의 전환을 바울 시대의 유대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22**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

바울에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21**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군중은 바울의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 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까지 받아들이기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그들을 폭발하게 만든 결정적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유대인의 메시아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천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실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유대 민족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르시는가?”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라들까지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인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권의식(**entitlement**), “나는 받을 자격이 있지만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 “나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어려움을 겪는 어떤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합니까?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아주 어려운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끝에 상을 받으면 우리는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받을 만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이 마치 카르마(karma)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익숙해져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돌고 돌아 결국 자신이 받을 것을 받게 된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으며, 우리의 행위와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사야 **49:6**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라기 **1: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들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뜻, 즉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는 수많은 말씀 중 단 네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 말하는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을 구원에서 제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과연 자신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분노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분명히 "아니요!"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행위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문제보다 더 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41-43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회개한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범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였다면 상당히 악한 일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직전 예수님과 짧은 만남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평생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죽기 바로 몇 순간 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가정에서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성장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그저 교회의 장로가 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선교의 삶으로 부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자격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오히려 모든 문을 막으시고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인내하라 고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어” 혹시 여러분은 다른 형제나 자매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혹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분히 많은 일을 했어.” “적어도 나는 저 사람과 같지는 않아.” 그러나 이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마귀가 우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는 너무 멀리 왔어.” “너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어.”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시겠어?”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그리고 이번 주 소그룹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소그룹에서도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질문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하는 질문들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선택된 몇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앙인처럼 보이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영받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도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저 사람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사도행전 **22:28**: 천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마이크 드롭(mic-drop)’의 순간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이크 드롭’의 순간이 허용될까요? 우선, ‘마이크 드롭의 순간’이란 무엇입니까? Gemini가 저에게 알려준 정의는 이것입니다. 공연자나 연설자가 아주 훌륭한 공연이나 발언을 한 후, 자신의 압도적인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또한 비유적인 의미로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그 누구도 능가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크 드롭’ 발언을 하기 위해 실제 마이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저는 사도행전 **22장 28절**이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히 ‘마이크 드롭’의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때려서라도 그에게서 답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당시 소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그들이 흔히 사용하던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바울을 이집트 출신의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완벽한 헬라어를 구사했고 아람어도 말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유대인인 것 같았습니다. 핵심은 그들이 바울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를 때는 일단 먼저 때리고, 그다음에 답을 얻어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단,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로마 시민은 재판도 없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시민권을 얻는 데 많은 돈이 들었다며 자신도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형제여,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그러니 군인이려면 질서를 지키라고.”

여러분, 로마제국에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세대 간 부(Generational Wealth)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어떻게 이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 백부장과 대치하게 된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사용합니다. 이 가난한 로마 백부장은 엄청난 돈을 들여 얻었던 그 귀중한 시민권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위해 세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2:29

“심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바울에게 한 일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어떠한 공로나, 그가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온 하늘의 보물이 아니라, 바울이 실제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물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선물들을 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을 만든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의미에서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의미에서든 성공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공에 운(luck)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그 일이 일어났더라면 나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시점에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 사람이 단 10초만 더 일찍 내 인생에 들어왔더라도 우리는 서로 연결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끝없이 많습니다. 금요일에 우리는 9·11 테러 25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아침, 우연히 세계무역센터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또는 쌍둥이 빌딩을 공격하는 데 사용된 비행기에 원래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우연히 그 비행기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모든 영혼이 그 선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가 그런 선물들을 우연히 발견하거나 우연히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통해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선물들을 사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선물들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적인 선물의 역할도 동시에 하는 이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마이크를 내려놓고(mic drop),’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너희는 재판도 없이 나를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아직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로마 시민권 덕분에 바울은 그럴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을 곳에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럴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었을 법적인 보호막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로마의 고위 관리들에게까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민권이 바울을 채찍질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기꺼이 매를 맞았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차라리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영향력, 이 보호막, 이 비유적인 의미에서의 ***로마 시민권***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선물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돈,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 세계의 위험한 지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이 종종 의사, 사업가, 교사의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거짓말도 아니며 속임수도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의사이거나 사업가이며, 동시에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서 있는 그 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기술을 연마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바로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곳에, 바로 지금 서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쩌면 여러분이 그 시민권을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백부장처럼,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다.”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그 시민권이 주는 혜택만 누리시겠습니까? 당시 로마 시민권이 주었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시민권으로 ‘마이크 드롭’을 하고 그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을 자랑하고, 그 선물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모든 곳에서 빛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BVC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살펴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선물들을 이곳에서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논박할 수 없는 진리(incontrovertible fact)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의 토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과 섭리의 반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을 박해하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grace)”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받을 자격 없는 호의 또는 선물입니다. 구원과 섭리, 즉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은 우리 중 그 누구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들,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정해 두셨던 결정들까지,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애초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 은행 계좌에 있는 돈, 잘되고 있는 사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직장, 그리고 가장 명문인 학교들에서 뛰어난 성취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노력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구원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반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때에는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욥기 1:21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때,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일이 아무리 고통스러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우리는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초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울 때,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움켜쥐고 쌓아 두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애초부터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의 강물처럼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의와 평등이라는 이상만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그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죄 가운데 살았지만 회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안으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또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삶에서 붙들고 살아왔던 그 어떤 정의나 의로움,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도 뛰어나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능력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요기도회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Hana 자매가 나눈 또 하나의 강력한 간증을 놓치셨습니다. 그날 함께 계셨던 여러분 모두가 증언하실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은혜롭고 덕을 세우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특별히 강하게 다가왔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제가 제 어머니를 위해 드리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제 친구들, 제 사촌들, 아직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자신에게로 이끌지 않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제가 드리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지적으로 알고 있는 저조차도 그런 사람들을 보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리지?” “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 라고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무한히 더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될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미래의 어느 날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확신은 오늘, 바로 여기, 이 삶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시작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헤쳐 나가며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충분하며,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지탱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디스커션 질문

1. 오늘 설교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이나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왜 그 부분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나요?

2. 바울은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단순한 특권으로만 여기지 않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로마 시민권”과 같은 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우리의 직업, 재정, 교육, 관계, 재능, 경험, 영향력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4. 설교에서는 우리가 “운”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돌아보았을 때, 당시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느껴지는 일이 있나요?
5.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정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분명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6. 우리는 때때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영역이 있나요?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을 어떻게 도전하나요?
7.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공평하지 않은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 때문에 비교하거나 불편했던 경험이 있나요?
8.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뿐 아니라 거두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9. 우리가 가진 시간과 돈과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10. 설교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무한히 더 좋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워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나요?
11. 가족이나 친구 중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조급하거나 답답했던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2. “우리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충분하다”는 말이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불확실성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13.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선물을 지금까지 주로 자신을 위해 사용해 왔다고 느끼나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4.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을 통해 사역할 기회를 보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지위, 영향력, 권리, 재정 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5.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신뢰하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요?